

일본의 책임있고 진정한 사과 촉구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증언회 및 그림 특별전

“우리는 인간이었다. 안 가겠다 발버둥 치던 나를 깨나 돼지 옮기듯 팔다리를 묶어 차에 던져 실었다. 그럼에도 우리가 원해서 갔다고 할 것인가? 일본은 더 이상 역사를 왜곡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죄하라!”

위안부 피해를 당했던 이옥선 할머니의 증언이 생생히 쏟아졌다. 할머니의 증언을 듣고 있던 부산 불자들은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다. 손으로 입을 막아도 울음소리는 새어나왔고, 눈물을 닦고 닦아도 마르지 않았다. 우리의 누이였고 가족이었던 위안부 할머니들의 아픔이 그대로 전해졌다.

회에는 강일출·이옥선 할머니가 참여했다.

강일출 할머니는 당시 나라의 어려움을 설명한 뒤 지금 현재 부강한 한국이 자랑스럽다며 일본에 방문제에 당당히 그들의 만행을 증언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할머니는 “나라를 빼앗기면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된다. 그 당시 강제로 끌려가 맞은 상처가 아직도 선명히 남아 있다”며 “지금 현재도 일본에 가게 되면 증언을 통해 일본의 만행을 설명하고 사과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나눔의집·범어사 공동 주최

“日 역사왜곡 말고 참회하길”

할머니 증언에 참석자들 눈물

인권센터건립 위한 기금 모연도

강일출 할머니는 1943년 당시 16살의 나이에 일본 순사에 의해 보국대로 끌려갔다. 중국 심양을 거쳐 장춘, 목단강 위안소에서 위안부 피해를 당했다. 전쟁이 끝날 무렵 장티푸스를 심하게 앓아 부대 밖으로 이송돼 불에 태워지려다 조선 독립군의 도움으로 구출됐다. 당시 위안소에서 겪은 경험과 살아남은 기억으로 강일출 할머니는 작품 ‘태워지는 처녀들’을 그렸고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의 모티브가 됐다.

이옥선 할머니는 증언을 통해 일본의 진실한 사과를 촉구했다. 이 할머니는 “일본은 100년이 넘도록 진실한 사과를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원장 원혜)은 인권센터건립모금을 위해 4월 3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증언회’를 개최했다.

하고 있지 않다.

이번 합의도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막은 채 진행됐다. 우리 돈이 문제가 아니다.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원한다. 강제로 끌고 간 꽃다웠던 그 사람들 앞에서 진실을 더 이상 숨기지 말라”고 말했다.

이옥선 할머니는 1940년 가난으로 학교에 가지 못했던 당시 공부를 시켜주겠다는 말에 가족을 떠나 울산에 있는 여관에서 일하게 됐다. 이후 일본인에게 끌려가 1942년 중국 연결에서 위안부 피해를 당했다.

수불 스님은 “증언회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세계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진실 앞에서 제대로 된 평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할머니들께서 건강하셔서 역사가 올바르게 서는지 잘 지켜봐주시고 살아계신 동안 바라시는 바가

이뤄지는 기쁨을 맛보시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는 1991년 8월 14일 김학순 할머니의 최초 증언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나눔의집은 일본군 성노예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던 1990년 초, 당시 생계조차 어려웠던 피해자 할머니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자는 취지로 온 국민의 성금을 모아 1992년 10월 서울 서교동 전셋집으로 설립됐다. 현재 나눔의집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10분의 할머니들이 공동체를 이뤄 생활하고 있다.

또한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할머니들은 피해 당사자로서 직접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표적인 활동이 ‘증언’과 ‘수요집회’다. 수요집회는 1992년 2월 1일부터 현재까지 매주 수요일 낮 12시 서울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하성미 기자**

차 정신의 巨木, 최규용 선생 기리다

금당차문화회 제4주기 추모제

현대 한국의 다성(茶星)으로 불리는 故 금당 최규용 선생(1903~2002)의 제 14주기 추모제가 4월 2일 부산 구덕문화공원 다목적관에서 열렸다. <사진>

추모제에 모인 전국 차인들은 헌향, 추모사, 헌다례 등으로 금당 최규용 선생의 정행검덕(精行檢德)으로 일군 차 정신을 기렸다.

여어선원장 정여 스님은 “금당 선생은 ‘깍다래’라는 화두 속에서 차문화 정신의 선구자로 활동했다”며 “한국의 대표적인 차인이었고, 이른 봄에 매화가 피면 매화차 한잔 하러 오라며 차를 권하던 풍류가였다”고 회고했다.

강욱희 금당차문화회장은 “평소 선생님은 ‘금당다우’ 다실에서 남녀노소 빈부에 차별 없이 그 어느 누가와도 손



수 차를 대접하는 다인이었다”며 “검소한 차인의 덕성을 평생 이야기한 그 정신은 지금도 많은 다인들 속에서 회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현대 차계의 거목으로 꼽히는 금당 최규용 선생은 우리 차의 맥을 되살리는 활동에 매진했다. 그 과정 중 우리 차 문화와 불교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해인사 선방에서 2년간 참선수행을 하기도 했다. **하성미 기자**

조동종 경남중무원 현판식

청정 스님 경남중무원장 취임

조동종 자비암(주지 청정)은 3월 30일 경남중무원장 이·취임식 및 중무원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행사에는 나눔사 무일 스님, 보은사 동화 스님, 공덕사 지율 스님, 경남중무원 각 사암중도를 비롯해 유육생 정수호 총재, 서동수 부총재, 이경원 미국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조동종 경남중무원장으로 취임한 청정 스님은 취임사서 “사찰들이 서로 화합해 구구 및 중단 발전을 위해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



으로 점심식사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편하게 식사 하고 정을 나눌 수 있도록 매주 2·4주 화요일에 점심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조동종 경남중무원장은 무료급식 봉사대 발대식도 함께 개최했다. **경남남부지사 청은 스님**

대구불충, 동자승 삭발식·수계법회

대구불교총연합회는 4월 5일 동화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오신날 홍보대사로 활동할 동자승의 ‘삭발식 및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동자승 삭발식은 동화사 총무국장 각정 스님을 계사로 대구 불비니유치원 등 어린이집 원아 7명이 오계수계에 참여했다.

이날 동자승들은 대구국제보살공원에서 열리는 달구벌 점등식과 관동놀이 축제 연등회 및 연등행렬 등 봉축기간 동안 부처님이 이 땅에 나투신 참뜻을 널리 알리는 홍보사절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FM 88.1Mhz, 부처님 법음 진주에도 울려

BBS불교방송 4월 1일 진주 중계소 개국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진주 중계소를 개국했다. 진주 중계소를 개국함에 따라 진주를 비롯해 사천, 고성, 남해, 하동 등 가청 인구 17만여 명에게 불교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됐다. 진주 중계소 주파수는 FM 88.1Mhz이다.

BBS불교방송은 4월 1일 경남과학기술대학교 100주년기념관에서 진주 중계소 개국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를 통해 BBS불교방송은 그동안 불법홍포를 위해 함께 도움을 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 부처님 법음을 전하는 데 더욱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BBS불교방송은 이날 행사를 통해 중계소 건립모연에 힘써준 마산 정법사, 보리암, 해인사, 쌍계사, 진주사암연합회 등에 감사패를 전달했다. 특히 진주 중계소가 세워진 땅은 해인사 말사인 두방사 위에 위치한 장군대산이다. 이 땅은 두방사 소유지로서 두방사 주지 대정 스님의 배려로 원만히 중계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은 “진주에 이어 타 지역인 여수, 광양 그리고 강릉까지 중계소를 개국하게 되면 전국적인 미디어로 거듭나게 된다”며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사부대중에 감사 인사 올린

다”고 전했다.

BBS부산불교방송 사장 수불 스님은 “진주 중계소로 말미암아 BBS불교방송은 부산 경남 전역을 가청권으로 둔 대표적인 불교미디어로 성장했다”며 “부처님 법음이 언제 어디서나 불자들에게 전달되길 바라며 오늘 개국을 맞아 더욱 진일보 해 기쁘다”고 축하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수불 스님(BBS부산불교방송사장), 진주사암연합회장 불암 스님(응석사 주지)을 비롯해 선상신 BBS불교방송 사장과 임직원, 이창희 진주시장, 송도근 사천시장, 김재경 국회의원 등 지역 정관계 인사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자비암, 임진왜란 호국영령 위령제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지키던 승병과 호국영령을 위한 위령제가 봉행됐다.

부산 동래 읍성 아래에 위치한 자비암(주지 자관)은 4월 3일 ‘임진왜란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위령대제’를 경내에서 봉행했다. <사진>

동래 읍성은 조선시대 일본을 마주보는 형상으로 부산을 대표하던 장소였다. 자비암은 부산시민의 안위와 발전을 기원하기 위해 위령대제를 봉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령대제는 한화 및 한양, 목동으로 시작해 추도사 및 영산재로 마무리됐다.

주지 자관 스님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3500여 명이 바로 이 자리 동래 읍성



에서 돌아가셨는데 위령제를 지내는 곳이 없었다. 자비암에서는 현재 10년 동안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자리에는 주지 자관 스님, 화엄승가회, 동래구불교사암연합회 소속 스님 40여 명을 비롯해 이진복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4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석가를 품은 53見

가슴을 치는 화두집이 드디어 출판되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문중인
독각~진귀 존자의
화엄경 참구와 만경(萬境)이 둘이
아닌 선(禪) 삼매문을 통한
선교일승(禪教一乘)의 평온한
안목으로 쓴 화두집 (석가를 품은 53見)
드디어 출판되다!

석가를 품은 53見 목차

제1見 석가를 품다	제19見 참새집	제37見 자식인연
제2見 평은 초대장	제20見 병(病)두 부처	제38見 형제 인연
제3見 법(法)을 버리다	제21見 생화와 조화	제39見 도반인연
제4見 차 한 잔	제22見 직거래?	제40見 부부인연
제5見 해인 심매	제23見 묘혜(妙慧)	제41見 대방광불 회엄경..
제6見 참조와 표절	제24見 법은 무의(無依)다	제42見 왕(대통령)
제7見 아부선사 웃다	제25見 천도(遷徙)란?	제43見 독각(獨覺)은?
제8見 요지경	제26見 고구마 부처?	제44見 <나>
제9見 말 많은 석가?	제27見 마음속 부처	제45見 대도(大道)란?
제10見 히말라야영화	제28見 개나리는 노랗다	제46見 부처님 오신날
제11見 동시구족	제29見 범부와 선지식	제47見 신통력(神通力)
제12見 법맥?	제30見 깨달음의 신호등	제48見 보시(기부)
제13見 부처와 하룻밤을?	제31見 다음생	제49見 정견(正見)을 치다
제14見 윈드서핑	제32見 종(鐘)	제50見 업(욕심의 흐름)
제15見 발효식품	제33見 스승을 찾아서	제51見 평온을 만나다
제16見 한 맛	제34見 대자유인의 길	제52見 화엄경_7행시
제17見 뒤바뀐 안목	제35見 집착을 놓다	제53見 평은 축제
제18見 평온한 남자	제36見 종교와 현실	

• 이렇게 피차스럽고 이렇게 부사의 하고 희유한 안목으로 이렇게 신선한 생기(生氣)와 묘(妙)한 장엄이 감도는 ~ 화두집은 부처님 경전 외엔 느껴 본적이 없었다

- 법화수행원 원일스님

• 이 화두집은 시원한 사이대를 마시는 느낌이다 ... 위광거사

☎ 도서출판 앙산
문의 1899-9532
ISBN 979-11-87004-05-9 값 30,000원

※ 붓다북 등 인터넷 및 전국서점에서 절찬리 판매중입니다